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12.(일) 12:00
(지 면) 2026. 7. 13.(월) 조간

울산에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나선다

- 행안부·울산시, 2028년까지 3년간 132억원 지원
- 폭염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특화 제품 성능평가 및 기술개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와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신청한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곳이다.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전과정을 일괄 지원해 관련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침수 특화(전북 군산), 지진 특화(경남 양산), 화재 특화(충남 홍성), 급경사지·산사태 특화(부산 사하) 등 전국에 4개소의 진흥시설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폭염 특화 진흥시설’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실내·실외 폭염 환경 실증시스템 등 11종의 전문 장비를 구축해 관련 기술과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며, 울산시의 주력 전략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32억 원(국비 66억 원, 지방비 66억 원)을 울산테크노파크에 지원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진흥시설 조성을 통해 폭염 분야의 재난 안전기술을 선진화하고 핵심 기업을 모으는 한편, 700여개의 전문 일자리 창출과 804억 원의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진흥시설이 폭염 분야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경훈 (044-205-4180)
		담당자	사무관	노형관 (044-205-4183)



참고1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개요

□ 진흥시설 개요

- R&D 기반이 취약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주요 재난유형에 특화된 성능시험·평가 플랫폼(관련 장비 등)
- 연계 R&D,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하는 복합 시설(기업입주 포함)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 진흥법 시행령 §9①>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 회의실 및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 조직 구성, 자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진흥시설 개념도



참고2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개요

□ 사업개요

- (주관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 (공동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울산센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영남본부
- (사업내용) 폭염 등 기후재난 기술의 시험·평가·실증 인프라 구축
- (시설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05(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조성 예정지 전경



시설 배치도(안)

□ 추진체계

